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하소서 (마태복음 26:36~46),

하나님 찬양 드리기

-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새찬송가 425 / 통 217)
-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경배와 찬양 184)

Focus, 마음이 힘든 순간에, 삶의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마음 열기 | 한 주간의 삶과 QT, 감사 제목 등을 간단히 나누며 마음 문을 여세요.

말씀 열기 | 본문 읽기 마 26:36-46을 함께 읽습니다.

배경 이해하기

예수님의 겻세마네 기도는 고난 주간 다섯째 날인 목요일에 있었던 기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성만찬을 제정해 주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여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겻세마네에서 홀로 고뇌에 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자신의 사명을 잘 아셨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은 인간이시기에, 장차 격을 고통 앞에서 땀이 핏방울같이 될 만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겻세마네 기도는 기도자의 바른 자세와 기도 내용, 기도의 필요성 등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 말씀 나누기

1-1. 관찰과 묵상 |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의 심경은 어떠하셨나요?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기도를 드리셨나요?(37~39절)

1-2. 적용과 나눔 | 기도 전과 기도 후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차이를 보이나요?(37~38, 45~46절)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 기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2-1. 관찰과 묵상 |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베드로와 두 제자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당부하신 것은 무엇인가요?(40~41절)

2-2. 적용과 나눔 | 주변 상황을 볼 때 기도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실제로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말씀 다지기

하나님께 기도하면, 번뇌는 사라지고 마음이 하늘 평안으로 채워집니다. 예수님은 공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기도를 통해 가장 중요한 분과 교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노출되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먼저 기도를 통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십자가 체험을 하신 것입니다. 그 기도는 가장 높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 기도의 승리는 다음 날 십자가의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성도는 영적 안일함과 나태함을 극복하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에 성공하는 인생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 일상에서 기도 시간이 가장 나중이 되지 않게 하시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먼저 기도를 선택하게 하소서. 제게 성숙한 믿음을 주셔서, 제 뜻 보다 크고 하나님 뜻이 이뤄지기를 간구하게 하소서.

마음에 새기기 |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 26:39